

전남 동부권 미래 첨단산업·글로벌 관광 거점 육성

석유화학·철강에 추경 집중 SOC·에너지산업 지원 강화 남해안벨트 등 'K-관광' 선도 "미래 100년 동부권 부흥 전력"

전라남도가 동부권을 미래 첨단 산업과 글로벌 관광·문화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8일 동부권 기자회견을 열어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대응과 골목상권 살리기 등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하고, 미래 100년 동부권 부흥을 통한 'OK, 지금은 전남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선 8기 3년을 맞아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는 "동부권은 전남 인구나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지역발전의 핵심 중추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동부권 7개 시군은 팔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전남의 더 큰 미래를 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미중 무역 갈등과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중국의 무차별적 저가 공세에 따른 산업 구조 전환 압력으로 석유화학·철강산업 등 주력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언급하며, "동부권의 산업 현장과 골목상권을 하루빨리 되살리기 위해 민생을 최우선에 둔 지역경제 회복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4월 5000억 규모의 자체 추경을 편성해 대미 수출 피해 기업과 석유화학·철강산업 지원에 주력했다.

또한 새 정부 추경을 통해 총 12개 숙원 사업에 2042억 원을 확보했으며, 그중 SOC 분야는 전국의 20%에 달하는 금액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 지사는 "동부권 경제의 핵심인 석유화학 등 지역산업 위기대응 지원사업도 산업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

게 추진하겠다"며 "1조30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조기 발행을 추진하고, 이번 새 정부 추경에서 통과된 지역사랑상품권 정부예산에서도 전남도가 최대한 많은 몫을 확보했다. 도민께 큰 힘이 되고, 지역 골목상권도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동부권의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도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2년 전 동부청사를 새롭게 개청하고, 동부지역본부장을 2급으로 격상, 5개 국 12개 부서에 28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동부권 대도약을 위해 그동안 준비한 노력들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하나하나 성공적으로 완성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며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기, 동부권을 미래 첨단산업과 글로벌 관광·문화의 핵심거점으로 키우면서 동부권 대도약의 새 희망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분야별로 벤처·창업과 첨단산업이 함

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출발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철강 메가 프로젝트 추진 △100만 평 규모 여수 울촌 융복합물류단지과 여수 적량·묘도지구 적기준공 △광양·순천 일원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연내 예타 대상화 △동부권 13GW 해상풍력단지 조성 및 전남 재생에너지 23GW 확대, 에너지 기본소득 연 1조 원 달성 등을 추진한다.

동부권을 세계 속 K-관광·K-콘텐츠를 선도하는 글로벌 관광·문화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도 박차를 가한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섬 방문의 해' 지정·연안 크루즈 운항 등 연계사업 추진 △1조5000억 원 투입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를 대한민국 대표 명품관광지로 육성 △여수 돌산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여수 화양복합관광단지·고흥 해양예술랜드·보성 울포해양복합센터 등 해양관

광단지 조성으로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구축 △순천 애니·웹툰 클러스터 완공, K-디즈니 프로젝트로 50여 개 수도권 콘텐츠 기업 이전, 문화콘텐츠 1000억 원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초광역 SOC 확충으로 사통팔달 남해안 교통망 완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우주고속철도(고흥보성광주전주대전), 우주고속도로(고흥광주), 여수순천 고속도로 등 국가계획 반영 △'전라선 고속화'로 여수-수도권 2시간대 달성 △전남 남해선 및 경전선 개통으로 목포-부산 간 이동시간 2시간 20분대로 대폭 단축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화태백야 연도교 건설로 섬 관광·정주 여건 개선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추진 △광양항 진입항로 준설 및 스마트항만 MRO 교육센터 구축 △여수 국동항·고흥 녹동항 여항 인프라 확충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및 부정기 국제노선 유치 등을 추진한다.

오지현 기자 jinyun.oh@jnilbo.com

광주교통공사, AI 활용 '청렴 화면보호기' 제작

광주교통공사가 사내 업무용 전산망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렴스크린세이버(청렴화면보호기)'를 자체 제작·배포해 임직원 윤리 의식 제고와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섰다.

8일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청렴화면보호기는 청렴과 관련 있는 주요 문구와 이미지를 포함한 화면 보호기로, 직원들이 근무 중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접할 수 있도록 제작한 디지털 콘텐츠다.

이번 청렴화면보호기는 제작 과정에서

공사 대표 캐릭터 '짱아'와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지피티(ChatGPT)'를 접목, 활용함으로써 창의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사는 제작한 청렴화면보호기를 누구나 쉽게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 방법과 함께 전 부서에 배포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일상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자연스럽게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성이 기자

전남농기원, 가축 고온 스트레스 예방 당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이른 여름 시작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양질의 사료 급여와 축사 환경 관리 등 여름철 가축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온 상승과 폭염이 이어질 경우, 가축은 고온 스트레스를 받아 식욕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체내 대사 불균형으로 면역력과 생산성이 저하되며, 심할 경우 폐사에 이를 수 있다.

가축별 적정 사육 온도는 한우·육우 10~20도, 젖소 5~20도, 돼지 15~25도, 닭 16~24도이며, 이 가운데 닭이 가장 더위에 취약하고, 그다음으로 돼지와 소가 고온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남농업기술원은 중앙·도·시군 합동으로 폭염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행동요령 배포 등 맞춤형 지도도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사료와 함께 비타민 및 무기질을 충분히 공급해 면역력 저하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충분한 물을 제공해 사료 섭취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붕에 차광막을 설치하거나 안개분무 및 환기시설을 활용해 축사 내 온도를 낮추고 가축의 체온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 특히 환기 시 우사 내 풍속은 1m/s 이상, 돈사 내는 0.2~0.5m/s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안개분무 시에는 송풍팬을 병행해 축사 내 습도 상승을 방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축사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고, 정기적인 소독과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물웅덩이 등 병원생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는 등 질병 예방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오지현 기자



서구청 행복약국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직자들이 8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적 여유를 위한 체험형 이벤트 '행복약국'에서 마음 처방을 받고 있다. 서구청은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한 '힐링 행정'에 나서며 건강하고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김양배 기자

광주시, 여름철 폭염 대비 건설현장 점검 강화

폭염 5대 예방수칙 이행 여부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과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31일까지 '폭염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무·첨단간 도로개설 공사, 광주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등 광주시가 발주한 공공건설공사 16개소를 대상으

로 진행한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 운영 여부, 생수 비치, 무더위 쉼터 설치, 폭염저감 그늘막 설치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광주시는 특히 고온환경에서 작업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그늘막 설치 △충분한 식수 제공 △휴식시간 운영 △보호장비 착용 △응급조치 체계 등 '온열환자 5대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공공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폭염·태풍 등 계절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은 "올해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예방 중심의 현장 점검으로 사고 없는 안전한 공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이 기자

김현성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내정자 사의

광주광역시 신임 문화경제부시장으로 내정됐던 김현성(사진) 전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사의를 표명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김현성 전 대표이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3일 김 전 대표이사가 골목경제 회복을 위한 시정 방향에 맞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 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며 신임 문

화경제부시장으로 내정했다.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 자리는 지난해 3월7일 취임한 이상갑 전 부시장에 1년2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으면서 두달째 공석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현안을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게 이끌 수 있는 적임자를 조속히 선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이 기자

전남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346억 확보

전국 102개소 중 20곳 선정 환경개선·공동체 활성화 추진

전라남도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서 지역 내 20개 마을(농어촌형 19곳, 도시형 1곳)이 선정돼 국비 346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172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서면심사와 대면·현장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102개소(농어촌형 85곳, 도시형 17곳)를 선정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낙후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과 기본 생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주택 및 빈집 정

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담장·축대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노인 돌봄 서비스, 건강관리 프로그램,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된다.

선정된 마을에는 2026년부터 4~5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며, 마을당 평균 투입 예산은 농어촌형 23억 원, 도시형 47억 원이다. 오지현 기자